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행복을 말하자(신명기 33:29)

교황 수요 일반 알현 방해 소동

프란치스코 교황이 2일 주례한 수요 일반 알현에서 한 남성이 교황과 가톨릭교회를 비난하다 제지당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날 바티칸시국 바오로 6세 홀에서 진행된 수요 일반 알현이 끝나갈 무렵 신자석 뒤에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영어로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외쳤다. 그는 이후 현장에 있던 바티칸 경찰과 스위스 근위병에 의해 제지를 당해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교황을 향해 "교황님, 하느님은 당신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쳤다.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동 와중에도 신자들을 향한 연설을 이어간 교황은 해당 남성이 밖으로 나가고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자 신자들에게 기도를 청했다.

교황은 "몇 분 전 한 사람이 소리치고 꾸짖는 것을 들었다. 육체적, 심리적 혹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어려움에 빠진 우리 형제의 형제 가운데 한 명"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받는 우리 형제인 그를 위한 기도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고 싶다." 며 "이 형제를 외면하지 말자." 고 부연했다.

교황은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교황은 "대회 모든 참가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참가자들이 저마다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면서 "스포츠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우정과 연대의 다리를 만들 수 있다." 고 전했다.

교황은 특히 패럴림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언급하며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의 사례를 본받아 모든 사람이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변한다면 우리 모두 가장 중요한 메달을 얻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아울러 1년째를 맞은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국민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로, 모든 이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행복자' 라고 말씀합니다(신 33:29). '장차 행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행복자로서 우리는 행복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모두 날마다 행복을 말하는 행복자들이 됩시다.

첫째, 아버지가 있어 행복하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교육하는 스승 아버지도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해보십시오.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납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때, "아버지" 라고 불러 보십시오. 앞길이 보입니다. 나를 인도해줍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아버지" 해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주십니다.

아버지는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해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가르치신 스승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 37:4-6).



둘째, 나라가 있어 행복하다 집이 없는 서러움, 타향살이 하는 서러움, 직장을 잃어버린 서러움.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서러운 것이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도 없듯이 나라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있다는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조국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집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가정이 있어 행복하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정이 시작될 때입니다. 가정에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담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은 내가 온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나와 소통하고, 너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또한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

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사명이 있어 행복하다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돕는 자가 생기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성실한 일꾼, 유능한 리더가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외출타기와 같습니다. 길을 보면 두려워서 떨어집니다. 내가 도착해야 할 목표지를 보고 가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합시다. 나의 사명을 말하고, 우리 가족의 사명을 말합시다. 또한 일터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말합시다. 사명이 행복이 됩니다.

행운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이고, 나라가 행복이고, 가정이 행복이고, 사명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됩시다.

-최성규 목사-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